

평양의 력사유적을 찾아서

의병들의 애국충정을 전하는 강남의 력사

강남군의 넓은 들과 나지막한 등성이에 옛 사당인 강남의 력사가 호젓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곳에 이른 우리는 립금석 평양시민족유산보존사업실장으로 부터 력사들의 공적을 빛내려고 기울인 선조들의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강남의 력사로 불리우는 이 사당은 임진조국전쟁시기 중화지방에서 의병을 찾고 용감히 처몰리친 립중량을 비롯한 13명 력사들의 애국충정을 길이 전하고 그들을 제사지내기 위해 세운 건물이라고 한다.

립금석실장은 《립중량의 병대의 투쟁에 대해서는 중화군에 있는 《서관삼진의 력비》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투쟁에 대해 웅당한 평가가 있어야겠으나 당시 황해도와 평안도에 파견되었던

이 평가되고 장렬하게 희생된 13명 력사를 추모하는 사당이 세워지게 되었다. 본전안의 정면에는 의력사가 그려졌고 행랑채뒤에는 립중량의 묘와 옛 비석들이 서 있었다.

본래는 주변에 울타리가 있어 2개의 대문을 지나야 본전으로 들어가게 되어있었고 본전을 중심으로 원래 여러채

의 건물들이 있었으나 지금은 행랑채 하나만 남아있다. 강남의 력사를 돌아볼수록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싸운 선조들의 애국적투쟁력과 함께 조선봉건왕조시기 사당건물 형식을 보여주는 귀중한 력사유적이라는 생각이 갈마들었다.

3간량통배집형식으로 된 강남의 력사는 현재는 본전과 행랑채만이 남아있었다. 본전안의 정면에는 의력사가 그려졌고 행랑채뒤에는 립중량의 묘와 옛 비석들이 서 있었다.

본래는 주변에 울타리가 있어 2개의 대문을 지나야 본전으로 들어가게 되어있었고 본전을 중심으로 원래 여러채



강남의 력사 본전



립중량의 묘와 비석들

장속영

2021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들

금강산체육단 여자권투선수

방철미



2018년 국제권투연맹 세계 여자권투선수권대회 51kg급경기에서 맞닥뜨린 선수들을 물리치고 우승을 쟁취한 금강산체육단 여자권투선수 방철미는 지난해의 경기들에서도 좋은 성과를 안아왔다.

어린 나이에 권투를 시작한 그는 세계패권을 쥘 꿈을 안고 훈련에 매진되어왔다.

이약하게 훈련한 보람이 있어 그는 국내경기들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2017년 몽골에서 진행된 울란바타르컵 국제권투경기대회 여자권투 51kg급경기에서 제1위를 하였다.

또한 그는 2019년 아시안남, 녀권투선수권대회 여자 51kg급경기에서 우승하여 아시아패권도 쥐게 되었다.

지난해 태양절경축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 권투 여자 51kg급경기에서 우승을 쟁취한 그는 공화국선수권대회를 앞두고 57kg급경기에 출전할

것을 신청하였다. 한개의 몸무게급도 아니고 두개의 몸무게급을 뛰어넘어 경기에 참가하여 우승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기에 전문가들도 그가 우승하리라는 생각이 못하였다. 하지만 경기과정을 지켜본 그들은 실력이 높은 선수가 다르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방철미는 지난해까지 2차례에 걸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로 선정되었다.

본사기자

효능이 높은 천연고려약들

공화국의 의학연구원에서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의학리론과 방법을 의거하면서도 최신제약기술이 조화롭게 배합된 여러가지 천연고려약들을 개발하였다.

그 가운데는 천연심장교감약, 천연취장교감약, 천연간장교감약도 있다.

이 약들은 많은 립상과정을 통해 그 효과성이 뚜렷이 검증되었으며 그것을 사용했던 사람들도 효과가 높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천연심장교감약은 심장기능개선에 효과가 있다. 이 교감약은 심장신경중, 협심증, 심장기능장애, 동맥경화, 고혈압, 뇌혈전 등 순환기계통 질환치료에서 높은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

천연취장교감약은 급성 및 만성취장염을 비롯한 각종 장질환들과 위경련, 급성 및 만성소대장염, 비장질환 등을 치료하는데 쓴다.

천연간장교감약은 강력한 간기능회복제로서 간장 및 담낭질환치료에 효과가 높다. 립상경험에 의하면 천연심장교감약, 천연취장교감약, 천연간장교감약을 따로따로 써도 좋지만 이 3가지 교감약을 매일 하루 세번 엇바꾸어가면서 모두 쓰면 심장혈관계통, 소화기계통, 간담도계통질환뿐 아니라 여드름, 습진, 건선, 피부가려움증을 비롯한 피부질환에도 아주 좋다고 한다.

특히 얼굴색이 밝아지고 주근깨, 검버섯이 없어지는 등 피부미용에서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이 밖에도 비만증, 갱년기장애, 허리아픔, 관절아픔 등 여러가지 병도 치료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천연고려약들은 질병이 있는 환자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건강관리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있다.

본사기자



물레와 무명의 유래

물레와 무명의 어원은 《문래》와 《문명》이라고 한다.

문래와 문명은 고려말기의 판리로서 조선에 처음으로 목화씨를 들여와 보급한 애국자인 문익점의 후손들이다.

문익점이 목화씨를 들여온 후 그와 그의 후손들은 목화에서 씨를 뽑고 천을 짜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고심어린 연구를 거듭하였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목화에서 씨를 뽑는 기구인 씨아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였

으며 문익점의 손자인 문래는 싹트는 기구를 발명하였다.

사람들은 거기에 그의 이름을 붙여 《문래》라고 불렀다.

그후 문명도 천짜는 법을 연구하여 널리 보급시켰는데 목화로 짠 이 천에도 역시 《문명》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문래》와 《문명》은 그 말소리가 점차 변하여 물레와 무명으로 되었다고 한다.

본사기자

봄나물의 약효

◆ 두릅은 씹살한 맛으로 하여 입맛을 돋군다.

▶ 팥물결이 풍부하여 함유되어 있고 단백질이 많으며 지방과 당질, 섬유질, 여러가지 비타민, 사포닌을 비롯한 영양생리활성물질들이 조화롭게 들어있어 혈당수치를 낮춘다.

▶ 결국 당뇨병, 골관절염, 위장병, 고혈압치료에 효과적이며 쓴맛을 내는 사포닌성분

은 피순환을 돕는 작용을 하기에 때문에 피로회복에 좋다.

◆ 도라지는 기침가래살익약, 염증치료약으로 기관지염을 비롯한 호흡기질환과 편도염, 인후염 등에 쓰인다. 잎과 줄기도 약제로 쓴다.

◆ 도라지의 해수는 데쳐서 나물로 먹으며 뿌리는 생채, 볶음, 장절임 등을 만들어 먹는다.

본사기자



두릅김치



도라지나물

웃모이 어두워서

한 선비가 저녁녘에 옛친구의 집을 오래간만에 찾았다. 그런데 친구의 집은 잘살면서도 내외가 어찌나 립색한지 들어온 음식상에 콩나물 몇오리, 김치쪽 몇개가 전부여서 저가락질 몇번이 그곳이 모두 바닥이 났다.

선비가 불쾌하여 한마디 했다.

《여보게, 초불이 더 없나?》

《그건 왜?》 《초불을 몇개 더 켜야 어두워서 음식이 보이지 않아서 그려네.》

사화

올바른 효도 (4)

글 엄창도, 그림 채대성

한참이나 아무말없이 바라보기만 하던 처녀와 아버지가 느닷없이 목격한 자루를 김의원에게 내밀었다.

《입자가 더럽혀 길을 가려는 까닭은 뭘 묻지 않았으니 이 돈을 받아주세요.》

영겁결에 돈자루를 받기는 했으나 김의원은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어 어리둥절해 하였다.

죽을병환 딸을 살려준 값으로 치며는 너무나도 보잘것 없는 돈이라며 저으기 미안스러운 어조로 고개까지 숙이며 얼버무리는 처녀의 아버지가 김의원은 목격한 돈자루를 들고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있었다.

자루에 든 돈의 무게를 가늠해보니 어림잡으로도 품일을 사고도 남을것같았다. 김의원으로서 이렇게 큰돈을 만져보기가 난생처음이였다.

이 많은 돈이 정녕 내것이던 말인가?! 이 돈이면 어머니의 허리병도 고쳐드릴수

있고 쌀걱정도 덜어드릴수 있을것이다. 송냥이한테 살을 뜯기우면서 사람을 구원하고 받은 돈이니 받아도 아무일 없는것이이다.

《입자가 더럽혀 길을 가려는 까닭은 뭘 묻지 않았으니 이 돈을 받아주세요.》

영겁결에 돈자루를 받기는 했으나 김의원은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어 어리둥절해 하였다.

죽을병환 딸을 살려준 값으로 치며는 너무나도 보잘것 없는 돈이라며 저으기 미안스러운 어조로 고개까지 숙이며 얼버무리는 처녀의 아버지가 김의원은 목격한 돈자루를 들고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있었다.

자루에 든 돈의 무게를 가늠해보니 어림잡으로도 품일을 사고도 남을것같았다. 김의원으로서 이렇게 큰돈을 만져보기가 난생처음이였다.

이 많은 돈이 정녕 내것이던 말인가?! 이 돈이면 어머니의 허리병도 고쳐드릴수

있고 쌀걱정도 덜어드릴수 있을것이다. 송냥이한테 살을 뜯기우면서 사람을 구원하고 받은 돈이니 받아도 아무일 없는것이이다.

《입자가 더럽혀 길을 가려는 까닭은 뭘 묻지 않았으니 이 돈을 받아주세요.》

영겁결에 돈자루를 받기는 했으나 김의원은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어 어리둥절해 하였다.

죽을병환 딸을 살려준 값으로 치며는 너무나도 보잘것 없는 돈이라며 저으기 미안스러운 어조로 고개까지 숙이며 얼버무리는 처녀의 아버지가 김의원은 목격한 돈자루를 들고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있었다.

자루에 든 돈의 무게를 가늠해보니 어림잡으로도 품일을 사고도 남을것같았다. 김의원으로서 이렇게 큰돈을 만져보기가 난생처음이였다.

이 많은 돈이 정녕 내것이던 말인가?! 이 돈이면 어머니의 허리병도 고쳐드릴수

더우기 제 부모님들께 효성을 다하려는 처녀를 돕고 돈을 받는다면 난 진실로 사람이 아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는 사심이 없이 진심으로 해야 옳은 것이거늘 아마 어머니도 이런 돈을 받지 않았다는걸 아시게 되면 나를 칭찬해주며 기뻐하실것이다. 부모에게 드리는 그런 기쁨이야말로 진정한 효도이다.

부모님인데... 김의원의 가슴속에서는 자기가 은혜를 입혀준 대가로 받는 돈인데 받아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옳지 못한 생각과 제 뱃속으로 번 돈이 아니면 받지 말아야 하는게 도리라는 옳은 마음이 서로 이마를 조으며 다투고있었다.

김의원은 돈자루를 내려놓아야 할지 그냥 가져가야 할지 망설이며 슬그머니 아래 방안을 둘러보았다.

별로 값나갈 기물이 없는 방안을 둘러보느라니 이 집에 이렇게 많은 돈이 있을 리 없겠다는 생각이 더욱 굳어졌다. 필경 이 돈은 딸을 시집보내려고 모아둔 것이거나 은혜를 갚는다면 반세이집지점에서 꾸은 돈일것이 분명하였다.

사실 그 돈은 처녀의 아버지가 가을에 5할을 더 바치기로 하고 빚을 내은 돈이었던 것이다.

이 돈을 가져서는 안된다.

안겨주고 길을 나서니 몸은 동풍 하늘을 나는듯싶었다.

처녀와 그의 부모들의 뜨거운 바래움을 받으며 큰걸음을 놓는 김의원에게는 스승에게서 배운 이런 글귀가 생각났다.

《몸이 패리고 살이 터지는 고초를 겪더라도 부모님께 올바른 효도를 바치고나

니 보배를 얻은듯 마음은 즐겁다.》

지금에야 비로소 그 글귀에 담겨진 참뜻을 온몸으로 절감하는 그였다.

며칠동안 화장산을 누비던 김의원은 거기에 품을 잡아가지고 돌아섰다.

그해 가을 김의원은 자기

의 소원대로 아버지가 지켜왔던 변방의 군진으로 떠날수 있었다.

《부모에게 올바른 효도를 한것처럼 나라에도 참된 충정을 바치거라.》 어머니의 간곡한 당부를 가슴에 새긴 김의원은 나라를 지키는 싸움에서 제 한몸을 아끼지 않고 용맹을 떨쳤다.

(끝)



천연기념물

룡연재 두루미

두루미의 겨울새인 룡연재 두루미는 룡연군일대의 넓은 습지대에서 매해 11월중순경부터 다음해 이른봄까지 겨울을 나는 보호대상종류이다.

몸길이는 130cm 정도로서 백두루미보다 약간 작다. 다른 두루미들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온몸에 재빛이 많으므로 특별히 구별된다.

암수컷의 몸짓은 같다. 이마와 뺨에는 것이 나있지 않으며 드러난 부위의 피부는 붉은색을 띤다. 주로 바다기슭과 논, 밭에서 풀을 뜯고, 풀뿌리, 흩어진 낱알류, 곤충 등을 먹는다.

이밖에 작은 물고기, 작은 동물들도 잡아먹는다. 조심성이 많은 새이며 무리지어 먹이를 먹을 때에는 《보초》를 세우는 습성이 있다.

이른봄에 번식지로 날아가 4~5월에 습

한 풀밭의 땅우에 둥지를 틀고 한배에 2개의 알을 낳는다.

날에는 푸른색바탕에 붉은 반색의 반점이 널려있다.

동물원들에서 관상용으로 기를 때에는 풀새, 난알류, 번데기, 물고기, 남새 등을 먹인다.

다른 새들과 함께 자연풍치를 한층 돋구며 학술상 귀중한 새이므로 적극 보호중식되고있다.

본사기자